

전일동향

전일대비 11.10원 하락한 1,358.40원에 마감

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1.10원 하락한 1,358.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00원 하락한 1,363.50원에 개장했다. ADP 민간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로 하락 출발한 환율은 대선 종료 이후 신정부 경기부양 기대감에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며 낙폭을 확대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위험선호 회복에 하락 흐름을 지속하며 1,358.4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9.43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63.50	1364.50	1352.00	1358.40	1359.00
	엔화	946.09	947.42	936.24	937.50	-
	유로화	1554.60	1556.31	1544.50	1547.70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93	-7.82	-16.65	-31.53
	결제환율(수입)	-1.62	-6.81	-14.81	-28.0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 고용 서프라이즈에...1,35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58.40) 대비 1.60원 상승한 1,357.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미 5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13.9만명 증가하며 예상치(12.6만) 및 전월치(14.7만)를 상회했다. 실업률은 4.2%로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임금상승도 전월대비 0.4% 상승하며 컨센서스(0.3%)를 상회했다. 고용지표 결과 발표 이후 미 국채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상승했으며, 달러지수는 99선 초반을 회복했다. 뉴욕증시는 고용시장 침체 우려에 대한 안도감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상승했다. 금일 환율은 견조한 미 고용지표에 따른 강달러 분위기를 반영하여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 물량,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등은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54.50 ~ 1363.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9800.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60원 ↑
	■ 美 다우지수 : 42762.87, +443.13p(+1.0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1.2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19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